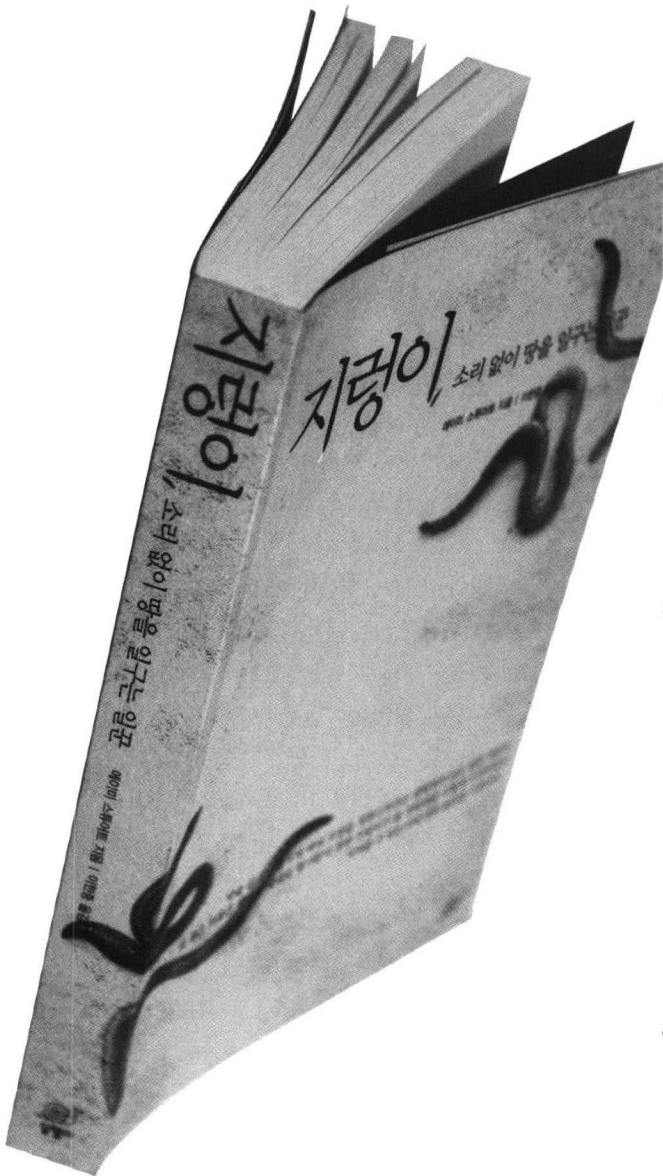


놀라운 것은 지렁이 세상에 다 있다!

에이미 스튜어트의
《지렁이, 소리없이 땅을 일구는 일꾼》



《지렁이, 소리 없이 땅을 일구는 일꾼》
에이미 스튜어트 지음 | 이한중 옮김 | 달팽이 | 320쪽 | 값 12,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 여름 밤비가 흠뻑 내린 날 아침이다.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니, 학교를 간다고 나서던 꼬마가 땅바닥에 엎드려 뚫어지게 내려다보다가는 갑자기 주저앉아 손으로 뭉가를 만지작거린다. 뭘 하나 궁금하여 고개 숙여 본 어머니는 질겁한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아들 녀석이 집어올리고 있지 않는가. 반사적으로 앞집의 그 어머니는 아이의 등쪽을 세차게 땅! 내려치곤, “이놈아, 더럽다” 하고 냅다 고향을 내지르면서, 아이를 개 잡듯 목줄기를 낚아 채고는 끌고 간다. 그러나 그 녀석은 지렁이에 미련이 남아 버터보지만 엄마의 힘에 못 이겨 … 아뿔싸, 저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저릴 수 있나? 일부러라도 지렁이를 잡아다가 같이 매만지고, 또 관찰을 시켜야 할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는 저 연약한 '과학의 싹'을 잘 가꿔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징그럽고 언짢아도 무럭무럭 자라는 '과학의 움'을 예리한 칼로 사정없이 자를 수 있나.

무엇보다 자연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가까이 가는 마음'이 '관심'일 것이고,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바로 '관찰'인 것이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호기심'인 것이요, 호기심은 어린이의 특권일 터. 그것이 바로 동심^{童心}인 것이요, 그런 동심 없이는 자연과 만날 수 없다. 하여 바로 동심은 시심^{詩心}으로 통하고 그것이 과학하는 마음인 과학심^{科學心}인 것이다. 결국 과학과 시는 (가) 만난다. 다른 말로 시인의 호기심으로 자연을 관찰해야 그것이 제대로 보인다는 뜻이다. 허참, 철부지 동심에 과학이, 또 시가 들어 있더라!…

어딘가에 필자가 썼던 글이다. 지렁이 타령이라 해두자. 우연히 만난 《지렁이, 소리 없이…》 책 이야기다. 어디 우연이 아닌 것이 있을까만, 우연치고 기구하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다. 출판사 이름이 '달팽이'다. 필자가 달팽이가 아닌가. '달팽이 박사 권오길!' . 예쁜 달팽이가 출판사 로고다. 그림과 이름을 보고 잠깐 놀랐다는 말이 맞다. 필자가 만일 출판사를 차린다면 '우렁이출판사' 밖에 쓸 것이 없구나. 빼앗긴 나의 이름이여, 달팽이출판사!

얼마 전에 필자의 생물 에세이, 《꿈꾸는 달팽이》에서 《달과 팽이》까지 아홉 권을 묶어 전집으로 내놨다. 그 중에서 세 권은 주제가 있어서,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은 단세포생물을, 《달과 팽이》는 달팽이와 우렁이, 즉 연체동물인 패류^{貝類}

에 대해서 써냈다. 나머지 책들은 이것저것을 섞은 '잡탕'이다. 다음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글을 쓸 예정이다.

왜 이렇게 긴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 지금 소개하는 이 책은 오직 환형동물인 지렁이에 관한 것만을 써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렁이, 소리 없이 땅을 일구는 일꾼!" 이것이 주제다. '다윈의 지렁이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주인공' '자연의 재기' '쓰레기를 황금으로' '죽은 땅을 숨쉬는 땅으로' ... 작은 제목 몇 개만 봐도 지렁이라는 동물은 연구 대상물이고, 또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 밭에 흙을 뒤집었을 적에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나오면 그 밭은 아주 건 땅이다. 어디 모래에 지렁이가 살던가. 지렁이는 낙엽의 유기물을 먹는지라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아니 살지 않는다. 이렇게 지렁이를 품은 흙은 흙냄새를 풍기지만 그렇지 못한 모래에서는 토향^{土香}이 없다. 지렁이가 사는 흙은 보드랍고 포실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결끄럽고 메마르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정이 떨어지는 인간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자 에이미 스투어트 Amy Stewart의 전공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정녕 생물학자도, 동물학자도 아닌 것 같다. 오직 정원 관련 칼럼니스트에다(참, 별의별 칼럼니스트도 다 있다!) 출판평론가이며, 여러 잡지에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며,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남편과 고양이 두 마리, 그리고 수천 마리의 지렁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지렁이를 어디에다 키울까? 땅이다. 즉 정원이다.

정원이 뭐가. 흙이다. 결국 지렁이 이야기는 흙 이야기다. 땅과 사회와 영성을 살리는 책을 찾고, 그것을 옮기는 일에 몰두하는 환경전문번역가 이한중 씨를 만난 것은 지렁이의 행운이다. 번역은 창작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는가. '옮긴이의 말' 일부를 따와본다. "이 책은 우리에게 땅 속에 대해, 땅의 주인공인 지렁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 새콤달콤 뽕깡고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주는 고마운 사과나무의 아랫부분 — 바로 땅 속 — 을 들여다본 것이다. 사과나무는 우리가 아는 땅 위의 영역만이 전부 아니다. 땅 속의 뿌리가 있었던 것이다. 사과나

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 듯이 땅 속의 사과나무 뿌리에는 지렁이가 깃들어 있었다." 멋진 글이다!

사실은 다음에 쓸 내 책의 제목이 '흙'이다. 지렁이도 그 글에 나올 것이고, 식물의 뿌리는 흙 속의 미생물이 풍부해야 건강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그래서 나무를 옮기고 나서 막걸리를 붓는 것이다 ... 등등.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 땅 속의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들지 않는다. 보려면 그것에 미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그것이 보여주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야 보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랬구나! 하며 지렁이를 중심으로 한 흙생물의 세계를 보게 된다. 가까이 있으면서 괜히 멀리하는 생물이 지렁이가 아닌가. 지렁이에 가까이 가는 마음 없이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읽어나가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던 지렁이가 여러 가지(종류)라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지렁이의 구조를 알게 될 것이고, 자양동체(암수한몸)인 지렁이가 반드시 짝짓기를 하여 정자를 서로 교환한다는 것에 놀랄지도 모른다. 근친교배는 해로운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지렁이가 다 알고 있다니... 꽃도 제꽃가루받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연구한 생물학자들이 '우생학^{優生學}'이란 이름을 붙였다. 즉 이들 동식물에서 근친결혼은 해롭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을 내는 사람들이나 옮기는 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학명^{學名}. scientific name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도 '줄지렁이' '붉은큰지렁이' '회색지렁이' 등의 사진이 나오고, 밑에 학명을 썼다. 내 눈에 그만 가시가 든 듯 아찔해 온다. 학명은 언제나 이탤릭체로 쓰자고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 '줄지렁이'의 학명, *Eisenia fetida*가 정체로 쓰여 있어 하는 말이다. 잘못됐다. 다들 자주 이런 오류를 범한다. 줄지렁이의 학명은 *Eisenia fetida*, 이렇게 이탤릭체로 써야 한다. 그리고 덧붙이면, 우리말 이름(국명)은 아무리 길어도 붙여 쓴다. '붉은 큰 지렁이'가 아니고 이 책에 쓰였듯이 '붉은큰지렁이'로 붙여 써야 한다. 이것도 틀리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아주 잘 처리했다.

지금도 온 세계의 지렁이들이 소리 없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있겠구나! 